

전기전자

월 4만대를 최초로 넘어선 글로벌 EV 시장

전기전자/미디어 Analyst 김현용

02. 3779-8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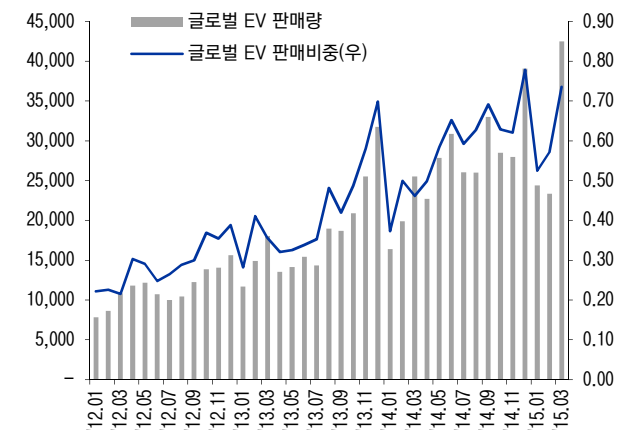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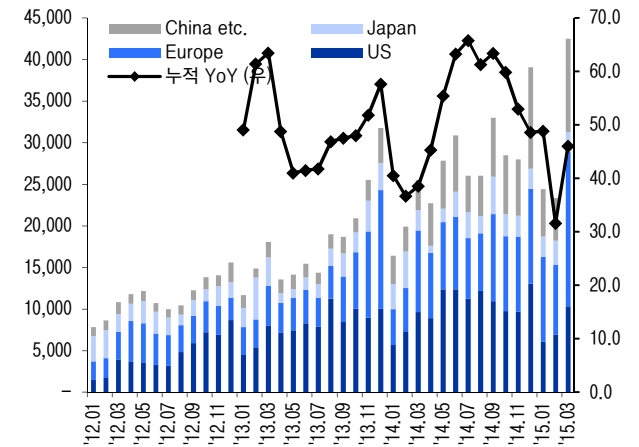
hyunyong.kim@ebestsec.co.kr

이슈
Call

2015. 4. 14

News /

- 글로벌 EV 시장 3월 판매량 42,500대(MoM +82%, YoY +67%)로 잠정 집계되어 최초로 월 4만대 규모를 돌파
- 유럽 18,530대(MoM 123%, YoY 89%), 중국 10,730대(MoM 125%, YoY 256%), 미국 10,340대(MoM 49%, YoY 7%)
- 중국은 정확한 승용차 EV 판매량이 집계된 상황은 아니지만, 중국자동차공업협회가 발표한 3월 전체 EV 판매량이 14,122대(BEV 9,390대, PHEV 4,732대)이고, 승용차 비중이 평균 75~80%였던 점을 감안시 최초로 미국 시장을 추월했을 가능성이 높음
- 일본도 정확한 EV 데이터가 발표된 상황은 아니지만, 3월 2,000대~3,000대 수준으로 추산되어 글로벌 EV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미미함, 글로벌 3월 판매량에 일본 판매량은 2,447대(YoY 0%)로 반영



Implication

- 유럽은 월별 최대 판매량(2013년 12월 14,275대)를 큰 폭으로 경신하며 판매비중 1.08%로 글로벌 주요 지역 중 가장 활발하게 EV가 보급되고 있음(3월 지역별 EV 판매비중: 미국 0.67%, 중국 0.57%, 일본 0.4~0.5%)
- 1분기 EV 판매량(9만대)의 지역별 비중은 유럽 41%, 미국 26%, 중국 23%, 일본 8%로 미국비중 큰 폭 축소
 - ➔ 단일국가로 여전히 최대 EV 판매국이지만, 중국이 3월 미국을 넘어서며 1분기 전체로도 미국을 맹추격
- 미국 중심의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 축이 유럽, 중국으로 다변화되며 EV 시장은 고성장세를 유지중
 - ➔ 7월경 테슬라 모델 X가 출시될 예정으로, 하반기부터는 미국시장도 성장성이 다소 회복될 가능성 존재

Call

- 1 작년말부터 지속되는 저유가 기조에도 글로벌 EV 시장은 1분기 기준 YoY +46%로 여전히 가파르게 성장 중
- 2 1분기 실적시즌이 끝나는 5월부터는 미국 EV시장의 성장성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가 가까워지므로 국내 EV 서플라이체인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될 것으로 판단함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현웅)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N.R. (Not Rated)	20% 이상 기대 -20% ~ 20% 기대 -20% 이하 기대 등급보류	2015년 2월 2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4단계 (Strong Buy / Buy / Marketperform / Sell)에서 3단계 (Buy / Hold / Sell)로 변경